

인터넷 ‘고액 알바’ 명목 사기 끌어들이는 신종수법 기승

광주일보 공익캠페인 보험사기 악순환 뿌리 뽑자

<중>설계사 가담 조직적 범행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범행 수법은 보험 전문가까지 동원해 날로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에 비해 인터넷 등을 통해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등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설계사 A(51)씨는 지난 2018~2021년 자신의 아버지 등 환자 7명의 치과 진단서를 허위 작성해 보험금 2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과 의사 B(여·68)씨와 공모해 환자들이 잇몸뼈 이식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꾸며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보험설계사·치과 의사 공모 허위 진단서 꾸며 보험료 타내
경연남 가중되자 공장 불을 지르고 14억원 청구했다 덜미
인터넷 솔깃한 유혹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사례 적극 제보

B씨와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고자 A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하지도 않은 잇몸뼈 이식 수술을 마치 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한 번의 수술로 치아 여러 개를 이식하고서 각기 다른 날 수술한 것처럼 꾸미는 식으로 보험료 수령 금액과 횟수를 늘렸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8일 광주지법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허위진단서 작성·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1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역 선·후배 혹은 지인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C(23)씨는 지난 2022년 4월 또래 친구, 지인 등과 공모해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일대에서 지인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924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C씨는 4개월 동안 4차례의 고의 사고를 더 내면서 총 7100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덜미를 잡힌 C씨는 운전자 등의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동승자 등을 병원에 태워주거나 직접 운전해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광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았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파악 중인 보험사기 적발 사례들도 다양하다.

한 공장주는 공장이 실제 운영 중임에도 휴업상태인 것처럼 속여 보험에 가입한 뒤, 공장 가동 중 발생한 화재를 휴업 중 발생한 화재인 것처럼 신고하면서 6억 6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다른 공장주는 공장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공장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 14억여원을 청구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뇌출혈(질병)로 사망한 가족을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 5억여원을 청구하거나, 자살로 인한 사망사고를 익사로 인한 사망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14억여원을 청구했다가 법의학자문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고액 알바’ 등 명목으로 보험사기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해 초부터 인터넷 사이트 등지를 모니터링해 적발한 보험사기 알선·광고 사

례를 최근 공개했다.

한 인터넷 카페 내 ‘고액 알바’ 게시판에는 ‘원주 경기 공격수 구합니다’, ‘경기 강원 공격 구합니다’ 등 제목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수도권 ㄱㄱ(공격)하거나 스비(수비)하실 분’ 등 내용을 적은 글도 발견됐는데, 여기서 ‘공격수’와 ‘수비수’는 각각 가해 차량, 피해 차량을 뜻하는 보험 사기 용어라는 것이다.

글에는 ‘1대 1로 진행해 안전하게 먹고 빠집니다’, ‘돈 좀 필요하신 분, 뜻 맞는 분만 연락주세요’ 등 내용이 쓰여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등은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400여명을 경찰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로, 무심코 가담했다가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솔깃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적극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금남이와 충장이’ 시원하겠네
광주시 동구 글로벌축제로 직원들이 21일 오후 금남공원에 설치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캐릭터 조형물인 ‘금남이와 충장이’를 물청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28~30일 전남 숙박업소 5만원 할인 받으세요

여름맛이 숙박세일 페스타

할인된 가격으로 전남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21일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등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등이 추진하는 ‘2025 대한민국 여름맛이 숙박세일 페스타-지역특별기획전’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간 전남 숙박 상품에 대

한 온라인 특별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2500명을 대상으로 7만원 이상의 숙박 상품에 대해 5만원 할인을 적용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쿠폰 발급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발급되고 입실 가능 기간은 6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할인 쿠폰은 11번가, 노랑풍선, 여기어때, 아놀

다 등 22개 OTA(온라인 여행사) 판매 채널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1인당 1매만 사용이 가능하다. 쿠폰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21시간(오전 10시 ~ 익일 오전 7시)이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전남관광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전남 숙박세일 페스타에서 2500건의 쿠폰 중 2384건을 판매, 투입 예산 대비 6.9배의 지출 효과가 났다”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가폭력기록물 은폐·조작·왜곡 위험 피해자·유족·시민사회 접근권 넓혀야

오늘부터 전남대 5·18연구자 대회
장연희 이태원조사 비서관 주장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과 관련된 기록물을 피해 당사자, 조사기관 등이 자유롭게 열람할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연희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서관은 22일 열리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제2회 5·18연구자 대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비서관은 “국가폭력 기록물을 국가의 소유물로만 간주하지 않고 피해자·유족·시민사회가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비서관은 국가폭력 기록물은 일반적인 행정 기록과 달리 피해자, 민간단체, 언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생산과 기록에 참여해 다층적인 구조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그에 비해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기록물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전제로 설계되어 민간 또는 피해자와 공동 생성된 기록물에 대한 별도의 소유·활용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폭력 기록은 생성 과정 자체에서부터 삭제, 은폐, 조작이 구조적으로 개입된 경우가 많으므로, 왜곡된 기억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5·18 청문회가 열렸던 1988년 정부가 ‘511위원회’를 운영해 신군부의 5·18 관련 자료를 왜곡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진실화해위원회(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 한시기관들은 방대한 양의 조사 기록, 증언, 수

집 자료를 생산했으나 활동 종료 후 국가기록원 이관 과정에서 DB연계 불가, 기록물 식별 불능, 검색 불가 상태로 사실상 방치된 사례가 빈번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 메타데이터 부재, 체계적 분류 실패로 인해 향후 진상규명과 사회적 활용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과정 기록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최소 15년 봉인됐는데, 같은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도 봉인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록물도 비슷한 상황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23년 12월 활동을 마칠 때까지 서류 28만여쪽과 4.5TB(테라바이트)의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지만, 기록물이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고 광주의 5·18 관련 기관·단체에 이관된 것이 전무해 후속 연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변호사는 “‘기억의 민주화’라는 명분이 때로는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거나, 오히려 국가가 기억을 다시 독점하는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며 “국가폭력 기록물에 대해 피해자, 유족,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대 5·18연구소가 주관하는 5·18 연구자대회는 22~23일 이틀에 걸쳐 과거청산, 기록, 진실규명 등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22일에는 국가폭력과 민주항쟁에 관한 장기적 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연구자 모임 ‘5·18학회’ 출범식도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료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료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첨착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원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원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